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홍성2차승원팰리체.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20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26일 2024년 3월 6일 수요일

'공천 갈등' 고비 넘긴 민주당, 본격 총선 체제 돌입

임종석 잔류로 계파 갈등 봉합 수순…이재명 대표 지원 유세 나서
'혁신·통합' 선대위 구성 착수…'정권 심판' 정치세력과 연대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후보 공천에 막바지 속도를 내면서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잡음과 '친명-비명계 갈등'에 휩싸였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일부 비명계 인사들의 당 잔류 결정으로 큰 고비를 넘기고, 추락한 지지율 반등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임 전 실장에 이어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했던 비명계 인사인 기동민 의원도 이날 당 잔류를 선택하면서 '공천 갈등'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친문(친문재인)계 대표적 인사인 임 전 실장의 컷오프에 따른 향후 거취 문제는 민주당 내홍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문제였던 만큼 정치권 안팎의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결국 당 잔류를 선택하면서 당 밖에서의 '반명(反이재명) 연대'가 느슨해짐에 따라 민주당은 한 고비를 넘기면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

임 전 실장이 탈당할 경우 공천 갈등에 반발한 친문계 인사들의 동반 탈당 등이 우려되면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공천 갈등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막바지 공천 작업과 함께 '민생'을 앞세워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지율 반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갑 선거구를 찾아 채현일 후보를 지원했고, 전날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를 찾아 이 지역구 후보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전날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한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에 지지율 제고 방안은 물론 지역별 체감 여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잡음과 계파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된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당면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총선 승패의 가늠자가 될 수도권은 물론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마저 지지율 낙폭이 심상치 않은 상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총선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공천 갈등이 한 고비를 넘기는 시점에 이른바 '혁신·통합형 선대위'를 띄워 하락 추세인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권 심판'을 내세운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거리두기에 집중했던 조국혁신당과도 연대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반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춤했던 공천 작업에도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공천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국 254개 선거구 가운데 237개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할 방침인 가운데 현재 180곳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는 5곳의 경선이 마무리됐고, 전남은 1곳만 단수공천한 상태다.

다만, 공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이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 의중을 드러내고 있고, 이미 탈당한 비명계 중진 설훈 의원도 외곽에서 이 대표를 견제할 '민주연합(가칭)' 세 불리기를 구상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 갈등은 선거때마다 있는 일인 만큼 이번 주중에 공천과 관련된 갈등은 모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 민생과 경제를 앞세워 추락한 지지율 회복에 나서는 한편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인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세력 결집도 이뤄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료 공백 장기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2022년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7% 이상 줄었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3000달러대대 후반 수준까지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2022년(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지난해 명목 GDP가 원화 기준 2236조3000억원, 달러 기준 1조7131억달러로 전년보다 각 3.4%, 2.4% 성장한 데다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대에 들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쳤다.

2021년(3만5523달러)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 떨어지면서(원화 절상)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와 함께 달러 기준 1인당 GNI도 다시 7.4%나 후퇴했다.

지난해 가까스로 반등하면서 2년 연속 국민소득 감소는 피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2021년(3만5523달러)보다는 적다.

GDP디플레이터는 2022년보다 2.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연합뉴스

전국 의대 40여 곳 3400여명 증원 신청

전남대·조선대 각각 45명 안팎
비수도권 대학 증원 요구 많아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지난 4일 마감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에서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3400여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관련 기사 6면〉

전남대는 40~50명 정도를 신청하고, 조선대는 45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애초 발표한 의대 증원 목표(2000명)을 크게 앞서는 수준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들 사이에서 증원 요구가 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27개 의대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는데, 이는 전체 증원 신청 인원의 72.7%에 달한다.

각각 의대정원이 125명인 전남대와 조선대는 교수진과 시설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50명 정도 수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돌입해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개강한 조선대 의대는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아 학사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 개강을 했지만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아 개강을 2주 미뤄 6일 개강을 앞둔 전남대 의대도 교수회의를 통해 개강을 25일로 한차례 더 연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KIA 황동하

5·18조사위 보고서, 발포 계엄군에 면죄부 ▶7면
KIA 스프링 캠프-황동하 '스위퍼' 기대하라 ▶18면
박물관 기행 - 전주 부채박물관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온라인 결제 시스템
6년/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대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Trade-in 프로그램
차량 매입 프로그램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1년/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